

기획 •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

1칼럼

## 세계에 드리우는 한국 군사주의의 그림자

여지우(주)\_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 한국산 무기는 누구를 겨누나?

과거 한국의 군사주의가 베트남, 이라크 파병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삼았다면, 오늘날에는 무기 수출의 형태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 무기 회사들은 총 173억 달러어치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가전(80억 달러), 섬유(123억 달러) 수출액을 상회하며 자동차(541억 달러)의 3분의 1 가까이 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사우디, UAE, 폴란드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K-2 전차(현대로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한화에어로스페이스),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 천궁-II 지대공미사일(LIG넥스원), 잠수함, 전투함(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탄약(풍산) 등이다.

무기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의 죽음과 고통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무기 산업을 촉진하는 것처럼 무기 산업 역시 전쟁을 촉진한다. 무기 산업이 전쟁과 무력 분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기 거래는 무력 분쟁의 발발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는 실증적 근거가 있다.



<웨스트파푸아의 거리를 활보하는 한화의 바라쿠다 장갑차>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총기, 장갑차, 곡사포 등은 웨스트파푸아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한국산 수류탄과 대전차무기 현궁이 2018년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연합군에 의해 사용됐다. 사우디로부터 현궁을 노획한 후티 반군은 이를 SNS에 자랑했다. 후티 반군 또한 이렇게 빼앗은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2019년 튀르키예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에도 한국산 포탄이 사용됐다.



<예멘 후티 반군에 노획된 현궁>

사람을 죽이는 건 이른바 살상무기만이 아니다. 김주열, 이한열 열사 이후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사용이 중지된 최루탄이 튀르키예, 바레인, 미얀마, 스리랑카 등지의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시민 수십 명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당시 한국 시민단체들은 최루탄 수출 중단 캠페인을 벌여 추가 수출을 막아냈다.

### 무기박람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활동가 8명의 재판

무기산업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기박람회다. 한국에서는 항공우주(ADEX), 지상(DX KOREA), 해양(MADDEX), 치안(KPEX) 등 분야별로 무기박람회가 열린다. 여기서 육해공 군사무기와 경찰무기가 일반 시민들에게 ‘멋진’ 볼거리로 둔갑된다.

무기박람회는 단순히 전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온 무기상인과 각국 군 관계자들은 서로 만나 수출 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 주최측에 따르면 올해 ADEX는 1,9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유치했고, 총 294억 달러의 수주 상담과 60억 달러의 현장 계약 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한국의 한 해 방산 수출액이 30억 달러 내외였으니 실로 대단한 규모다.

한화, LIG넥스원, 록히드 마틴, RTX 등 많은 ADEX 참가 기업이 금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라 불리는 예멘 내전에 깊이 개입된 사우디와 UAE에 무기를 수출한다. 라파

엘, 엘빗 시스템즈 등의 이스라엘 무기 회사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팔아 수익을 올린다. 이를 “전장에서 검증된” 제품이라 강조하고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구매자도 문제다. 무기박람회에는 각국 군대의 무기 획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 및 군 수뇌부, 방위사업청장급 인사들이 ‘VIP’로 참여한다. 작년 DX KOREA에는 37개 대표단이 ‘VIP’로 초청됐다. 이중 14개 대표단이 전쟁이나 무력 분쟁에 직접 관련된 국가이고, 9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국가이다.



<DX KOREA 2022 방해 시위>

전쟁은 어느 한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쟁에 공급되는 무기가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평화활동가 8인은 작년 9월 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DX KOREA 2022 전시장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면서, 무기 산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우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합계 1,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끝에 올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DX KOREA 조직위원회가 평화활동가들의 비폭력 행동을 고발한 것이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였음이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행사 관계자나 관람객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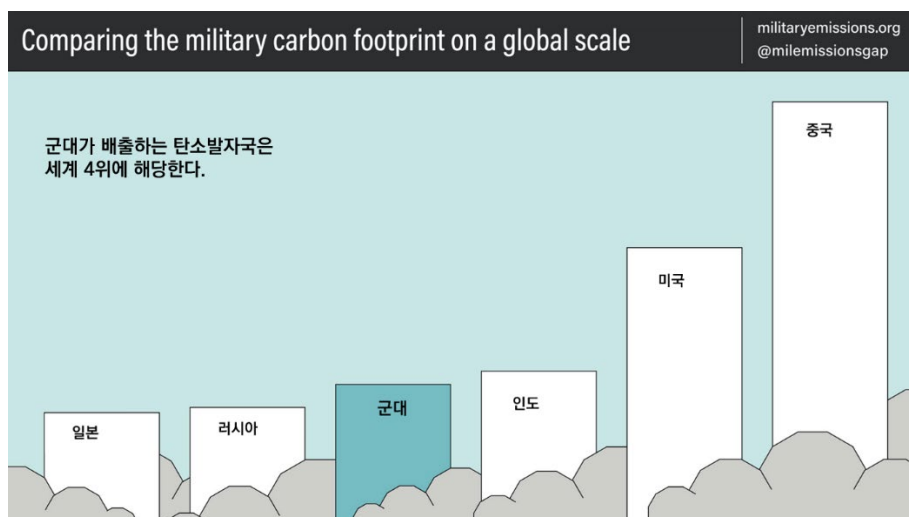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면서 ‘DX 여덟명의 재판’은 2심까지 가게 됐다.

## 군사주의와 기후위기의 악순환

전쟁과 기후위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화석연료는 많은 전쟁과 군사 개입의 주요 원인이다. 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2003년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군수업체와 석유자본의 압력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서방의 연료 공급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산유국의 무기 수입량과 무기 공급국에 수출된 석유의 양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기후위기는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기후위기에 따른 해수면 증가와 가뭄, 홍수 등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감소시킨다. 식량 불안정과 기근, 식수 부족과 같은 자원의 희소화는 기존의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불러온다. 비자발적 이주가 늘어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극단주의와 군사주의가 강화되어 내전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기후변화가 무력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셋째 전쟁과 군사 활동은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군대와 무기 산업을 비롯한 군사 부문은 「지구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는 세계 각국 군대의 온실가스 운영 배출량(Scope 1+2)을 전체의 1.0%, 탄소 발자국(Scope 1+2+3)을 전체의 5.5%로 추산한다. 항공(1.9%) 및 해운(1.7%) 산업과 견줄만한 크기다. 국가로 비교하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러시아 전체보다 크다. 탄소 배출뿐 아니라 무기 원료 추출부터 수질과 토지의 오염까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크고 다양하다.



<군대는 세계 4위의 ‘기후 악당’이다.>

그럼에도 군대는 1997년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서 제외됐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군사 부문 배출량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선택사항’이다. 군대 내 연료 연소로 인한 직접 배출(Scope 1)과 군대가 구입한 열, 전력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Scope 2) 모두 보고 및 감축 의무가 없다.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Scope 3)은 차치하고 말이다. 군사 부문의 경우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Scope 3+)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럽에서는 무기 회사가 탄소중립에 근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바이오디젤 전투기, 수소연료 전차, 친환경 탄약 같은 저탄소 전쟁 방법에서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 군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군대 축소의 핵심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군사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맞서는 활동을 늘리며,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문제처럼 무력 분쟁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 [2인터뷰] 이스라엘에서 온 여성 병역거부자 오르(Or)

### 폭력을 이용한 복수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전쟁없는세상」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국적의 활동가 오르(Or)씨를 만났다. 모든 성별이 징병되는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거부한 이유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들었다.

#### 아랍 출신 유대인

저는 아랍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현재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요. 모로코, 이집트, 리비아, 이란...등에서 이주한 아랍계 유대인들은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에서 인종차별과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갖습니다. 형제는 모두 6명으로 아랍계 유대인이 대가족을 이루는 일은 흔합니다. 우리 가족은 우익 성향입니다. 엄마는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고(물론 저는 엄마를 무척 사랑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어린 시절에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났고 식당이나 버스에서 벌어진 폭탄테러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지 주변에 물었지만 “아랍인과 유대인은 항상 서로를 싫어한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해가 되는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배웁니다. 하지만 저는 18살에 영장을 받고 징집을 거부했습니다. 군인이 된다면 내 친구들과 가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NEW FROFILE’이라는 NGO에서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봉기를 뜻한다. 팔레스타인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 병역거부, 전부를 잃는 일

군대를 가지 않으면 우선 가족들이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징집을 거부하고 수감된 때 감옥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사촌들과 이모들도 저에게 오랫동안 말을 걸지 않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군에서 보내는 시간은 형편없어도 군대에 가지 않으면 받는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모두들 입대를 선택합니다. 18살의 삶은 친구와 가족, 사회로부터 절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병역거부는 전부를 잃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선택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수감생활 이후, 이스라엘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에 가서 잠시 살았는데 외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김없이 군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뭘 했는가?”는 지금도 타인에게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페미니즘은 평등을 위해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에 가라고,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전투부대에 복무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별, 종교, 군복무 여부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군에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 온 무기체험>

## 모든 곳, 모든 나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고 0살 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군인에게 보내는 카드를 쓰고 선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인은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학교에는 군인 선생님이 있어서 군복을 입고 총을 가지고 옵니다. 학교에서 군인이 되는 과정도 배우고 군인 선생님이 어느 부대에 가고 싶은지에 따라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6세가 되면 모두 폴란드에 가서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제2의 홀로코스트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학생은 1년에 일주일간 군사훈련을 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 구호를 외치는 법을 배우고, 나무 주변을 100바퀴 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학문제의 예시도 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의 숫자를 몇 명씩 몇 그룹으로 나뉘야 하는지 계산하는 식이죠. 코스튬을 즐기는 전통 축

제에서도 사람들은 섹시하게 변형한 군복을 입습니다. 스카우트는 군입대를 준비하는 전 단계쯤으로 여겨져 빨리 달리기 체식훈련 등을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일 뿐인데 말이죠. 군인과 군복과 무기가 일상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 폭력의 내면화, 일상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은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폭력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라는 환경은 개개인의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폭력적인데 속마음은 평화로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차 자리 한 칸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칼을 찌르는 일이 생기고, 폭력적으로 자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시위가 일어나면 경찰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시위대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것, 또 폭력이 만연한 것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폭력에 동조한다면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전쟁, 양쪽에서 친구를 잃다



이번 전쟁은 최악의 경험입니다. 하마스가 저지른 일은 아주 끔찍한 일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마스에 의해 죽거나 납치당한 사람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분노,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휩싸여 있어요. 가자(KAZA)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슬픔과 분노, 복수의 감정에 빠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쪽 모두에서 친구를 잃고 있습니다. 점령과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저에게 가족조차도 '배신자'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유치원 일상>

### 두려움은 막을 수 없는 '아이언 돔'

당연히 전쟁은 이스라엘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로켓이나 폭탄이 오면 경보가 울리고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아이언 돔'이 로켓을 막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로켓의 잔해가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경보가 언제 울릴지,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가자지구 주변, 레바논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도 하고 나라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을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상점, 건물 관리...

등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울감도 많이 높습니다. 집을 먹기도 하고, 직장에 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아이언 돔도, 경보도, 대피소도 없습니다.

### ‘전쟁 중단’은 금지어

전쟁을 멈추라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끌려가 감옥에 수감됩니다. 정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감시하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가족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집에서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를 만들려던 성직자들을 포함해 전쟁 중단과 평화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테러리스트로 취급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 폭력이 부르는 폭력

이스라엘 사람 중 일부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없애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두 250만명인데 그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자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죽이면 다음에 그들은 다른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마스를 말살한다고 해서 다른 무장 세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복수하면 평화로운 끝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닥칠

<낙태 반대 포스터”낙태는 군인 한 명을 죽이는 일”>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개의 지역일지, 하나의 땅일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함께 살아야 할 때를 위해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만나서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원활동가]

## 무력함에 뿌리내리지 않는 사회를 위해

조재성(고려대학교 사학과)

무력함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감정이 아닐까.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무력함에서 찾아옵니다. 다가온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설령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극복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인간의 삶은 얼어붙습니다. 끝을 찾을 수 없는 억울함과 허탈함 속에서 개인은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원인 모를 고통 앞에서 이유라도 찾고 싶어 하는 행동은 무력함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진실의 힘」 자원활동을 통해 마주한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무력에 맞서는 투쟁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끌려가 형용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며, 사실과는 다른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들은 삶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조작된 것이죠. 끊임 없이 무고함을 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였기에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결국 ‘범죄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을 때, 그 허탈함과 무력함은 가히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무력함은 출소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사법의 언어로 규정된 배제에 이어, 일상의 언어로 다가온 차별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쉽사리 떼어낼 수 없는 명칭은 ‘빨갱이’, ‘간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표현해봐야 재판을 통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평생을 살던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개인이 이루어 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당했던 일상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무력함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감히 누가 쉽사리 그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원활동은 그들의 삶의 궤적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박동운 선생님, 임봉택 선생님, 정삼근 선생님 및 송씨 일가 사건 등의 사건기록을 정리하고 파일로 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쉽사리 접할 수 없던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국가폭력의 흐름을 좇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처음 기소되었던 순간부터 진술서의 내용 및 최종 판결문, 그리고 판결 이후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진상규명이 진행된 과정까지를 문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담담하게 들려주는 기록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할 판결문이 감정적·비논리적으로 한 개인을 배격했던 불편한 현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력으로 무고한 개인을 범죄자로 조작했던 불운한 역사 앞에서, 피해자분들이 감내했던 무력함과 국가 사법절차의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외에도 현대사에 상흔처럼 남아있는 국가폭력 사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랑인으로 호명되어 사회의 자장 밖으로 강제 격리된 피해자들, 재사회화라는 미명 아래에서 노동 착취에 내몰린 피해자들, 그들은 모두 우리 사회 한 부분에서 함께 살아가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을 포함한 국가폭력 사건들의 자료를 읽어가면서 유난히 문서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재심을 포함한 진상규명은 최근에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의 성장기 전부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분들은 무력함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궤적을 마주하면서, 이제야 사건을 공부했다는 늦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 해결은 일반적인 사건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사건의 주체인 국가를 심판하는 것은 법인데, 그 법을 주도하고 권한을 부여한 주체가 역설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일입니다. 공정한 집행자이자 공익 그 자체로 여겨지는 국가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인 국가에 비해 개인은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국가는 공동체의 공식적인 역사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에, 이미 국가는 공식적 역사서술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를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로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역사서술은 공동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결정하며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도 합니다. 국가와 개인의 기울어진 위치는 불평등을 낳고, 시간의 연대기 속에서 소외당한 개인들은 이렇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분들이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던 동력, 그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본질은 흘러간 시간 자체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궤적에서 의미를 발굴하고 그것을 다시 시간의 흐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폭력보다 강했던 인간의 삶이 꼭 쥐고 놓지 않았던 ‘진실의 힘’은 조작된 사실이 애써 가렸던 진실이 세상으로 드러나도록 추동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내셨듯 말입니다.

지난 6개월간, 사건과 함께 호흡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간 이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세계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아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기에 무엇이 옳다는 가치판단을 쉬이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간의 삶은 폭력보다 강하다’는 명제가 진정 빛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어려움에 눈길을 포개고, 공정하지 않은 권력에 의문을 던지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힘」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지성을 추구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무력함에 기꺼이 반문하는 시각을 지니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소식]

1. 김평강 선생님이 지난 11월 14일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1941년 제주에서 태어난 김평강 선생은 여덟 살이던 제주 4·3 때 당시 경찰이던 아버지를 눈 앞에서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던 김평강 선생은 일본을 오가며 밥벌이를 했습니다. 1981년 제주경찰서는 선생을 불법체포해 일본에서 일한 것을 빌미삼아 끔찍한 고문을 가했고, 결국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조총련을 만나서 간첩을 했다는 것인데, 증거는 없었고,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것이 애매합니다만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고, 법원은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고향 사람들’이 있고, 매일

108배를 하며 남편의 고난에 함께 하던 아내, 그리고 광주교도에서 만난 ‘벗’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 천신만고 끝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선생님은 위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굴곡진 역사의 상처는 선생의 삶을 공격했지만, 그런 고난과 공격에서도 선생은 평생 온화하고 너그러운 표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늘 “즐겁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고이 잠드신 그곳에는 평화의 강물이 푸르게 흐르기를 염원합니다. 고이 잠드소서. 재단법인 진실의 힘



2. 한중선의 창업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대표 한중선씨가 집 근처인 광주 북구 동강대학 후문에서 붕어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주변이라 학생 손님이 많은데 밤늦게 포장을 접을 때 도와주러 오는 학생도 있고 입금 계좌 안내판을 만들어 주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만발이라고 합니다. 한중선대표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응원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2023년에도 진실의 힘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기부금 영수증은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회원도 연락주시면 바로 발급해 드릴게요.

문의: 전화 02-741-6260 이메일 [truth@truthfoundation.or.kr](mailto:truth@truthfoundation.or.kr)

###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 공제 범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금액에 대해 후원금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구분	개인	법인
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소득 금액의 10%
	-1천만원 이하: 20% 세액 공제	
	-1천만원 초과: 35% 세액 공제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녀나 가족 이름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나요?

후원해주신 자녀 혹은 가족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없이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올해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원 감사합니다(2023.11)

강남규 강문민서 강서정 강영숙 강용주 강은옥 강형철 고동민 고민경 고제영 곽경란 구미성 구종우 구혜임 권대우 권지윤 김경달 김경순 김경아 김경훈 김권호 김규태 김남섭 김동민 김미경 김

민희 김병선 김상훈 김선정 김성일 김소연 김순영 김시현 김애상 김영희 김용규 김원영 김유선  
김유심 김은미 김은영 김응수 김이슬 김인수 김정애 김정애 김정우 김정인 김정현 김종규 김종익  
김주영 김준성 김지은 김충례 김평호 김학주 김한수 김현무 김현정 김환균 김효정 나백주 노복미  
류혜정 모재연 문장렬 민원식 박경미 박계용 박근홍 박노성 박미옥 박보경 박선이 박소희 박수빈  
박영란 박옥희 박유리 박윤주 박장락 박정남 박종수 박주홍 박중석 박철홍 박충식 박현진 박형주  
배소영 배진환 법무법인[유] 지평 서민아 설정희 손현주 손현철 송소연 송순영 송재혁 송지완 신  
경구 신동규 신동기 신동호 신진숙 심은정 심찬섭 안경호 안금자 안명옥 양경희 양남훈 염은진  
오현석 우한철 위정미 유승찬 유재우 유창진 유현미 윤경희 윤양희 윤택진 이근행 이기범 이미정  
이민주 이성엽 이옥 이옥란 이용현 이원식 이은숙 이은애 이자영 이재범 이정미 이정식 이진 이  
채훈 이춘희 이한솔 이해림 이현주 이해선 이해영 이해은 이효림 이희정 임순영 임인자 임혜영  
장영아 장윤정 장은교 전원현 정길동 정길화 정대하 정미란 정미연 정범진 정봉숙 정유진 정윤하  
정의로 정재홍 정정희 정종호 정혜경 정희선 조동찬 조미영 조미진 조은희 조일준 채수미 채옥희  
채환규 천춘미 최득록 최보람 최성진 최세정 최승남 최승진 최승진 최영아 최은아 최정식 최진민  
최진숙 하인숙 하지훈 한정열 한지연 한진영 허연숙 홍순성 황순규 황해지니